

# 사라져가는 우리 것에 대한 그리움

김수남 《서울 진오기굿》



· 월도와 삼지창을 든 함부전 무녀의 상산마누라거리. (왼쪽)  
· 망자의 저승가는 길을 열어주는 갈가르기.



무속은 과연 사라져야 할 미신일 뿐인가. 그동안 무속신앙은 미신타파의 대상이 되어 음지에서 은밀히 행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각인된 무속의 이미지는 숨겨야 할 치부도, 화려한 무대예술도 아닌 일상생활에 용해된 삶의 일부이다. 10여년 동안 무속이 펼쳐진 현장을 탐방하며 '굿'을 담아낸 김수남(52)의 <한국의 굿> 시리즈(전20권)는 민중의 삶에 뿌리내린 무속의식의 단단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시리즈의 스무권째로 펴낸 《서울 진오기굿》(1993, 열화당)은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굿으로 무속의식 중에 백미로 꼽힌다.

정결한 몸을 갖춘 무녀는 신을 청하기 전

에 부정거리를 하여 신이 좌상할 장소를 깨끗이 한다. 월도와 삼지창을 든 함부전 무녀는 상산마누라거리로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 한라산 여장군 등에 제수를 빈다. 쾌자를 입고 춤을 추며 뒤주대왕, 서자대군, 사신별상 등에게 소원성취할 수 있게 기원한다. 별상거리에서 공수를 주고, 삼지창을 쌀이나 소금 위에 균형을 세운다. 신들이 제물을 받았음을 확인한 뒤에 꿰어얇은 가죽에게 콩·팥·조 등을 뿌려 잡신을 몰아낸다. 망자의 영혼이 깃든 무녀는 가사상태가 되어 펼쩍펼쩍 뛰기도 하고 때로는 실신을 하기도 한다. 가족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연신 허리를 굽혀 빌고 또 빈다. 저승사자는 배로 고리를 만들어 망자를 잡아가려 하지만 가족은 제상을 가로막고 망자를

빼앗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명이 밝아 올 때쯤 결국 저승사자에게 잡힌 망자는 무명을 가르며 이승을 떠난다. 뉘전을 걸친 무녀의 입을 빌린 망자의 말을 끝으로 신당을 무대로 펼친 한편의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사라져가는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작가는 사진집으로 <한국의 굿> 시리즈 이외에 《풍물굿》(1986, 평민사), 《장승제》(1988, 행림) 등을 펴냈고, 최근에는 아시어로 영역을 넓혀 《아시아의 하늘과 땅》(1994, 타임스페이스),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1997, 석필) 등을 펴냈다.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를 역임하고,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242호 / 1998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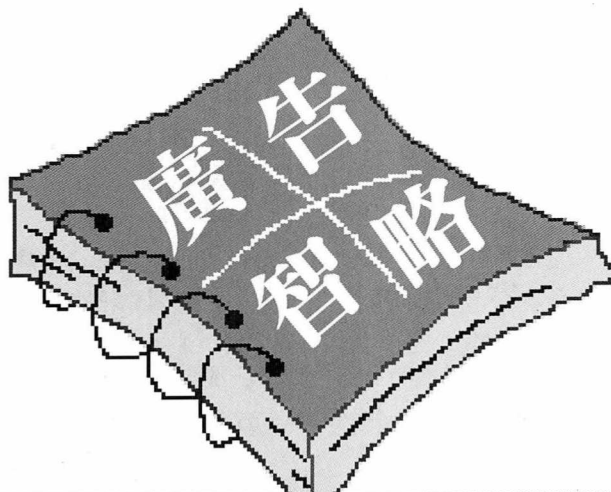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